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경봉 스님(3)

항국, 어째서 정상철가를 벗지 못합니까?

경봉, 절을 하고 묻게나

(항국 스님이 절을 하자, 경봉 스님은 한 대 때렸다)

1950년 한국전쟁 중,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과 여러 선승들이 차담을 나누는 가운데 벌어진 신문답이다. 먼저, 항국(香谷, 1912~1978) 스님이 물었다.

“어째서 정상철가(頂上鐵枷) 정수리 위의 쇠로 된 형틀을 벗지 못합니까?”

“절을 하고 묻게나.”

항국 스님이 절을 하자, 경봉 스님은 한 대 때렸다.

그러자 덩치 큰 항국 스님이 경봉 스님을 한 대 치며 응수했다.

“그것은 죽은 사자입니다. 어떤 것이 정상철가입니까?”

“눈이 열리지 못하였군. 손으로 잡아서 밀고 끌어앞에 놔둬 테니 보게라.”

항국 스님은 계속 같은 질문으로 맞섰다.

“어떤 것이 ‘철가’는 구멍이 뚫리지 않은 형틀인가?”

경봉 스님이 “정상철가 회두에 ‘답 아닌 답’ 제시”

“그렇다면 손으로 잡아서 끌고 밀어 뒤에 떼 놓아 보게라.”

“설봉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바람이 소슬하게 불고 물이 차디차게 흐른다.”

이번에는 경봉 스님이 항국 스님에게 물었다.

“어째서 정상철가를 벗어 버리지 못하는가?”

“땅을 파고 들어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차나 한 잔 해라. 석가여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동서남북!”

경봉 스님은 술가지처럼 들어 보이며 다시 물었다.

“여기에 조사(조사)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이에 항국 스님은 침묵하였다.

항국 스님은 1947년 어느 날, 문경 봉암사에서 도반 스님이, “죽은 사람

을 죽여 다하여야 산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려 다하여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하는 법문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물목 회두 일념삼매에 들었다가, 21일 만에 화두를 타파하고 오도송을 옮겼다. 위의 문답은 3년 후 20년 연상인 경봉 스님을 만나 탁마하는 장면이다.

항국 스님이 거랑에 있어 공격 무기로 택한 ‘정상철가’란 <무문관>에 나온 말로써, ‘철가’란 철가무공(鐵枷無功)의 준말로 구멍이 뚫리지 않은 철로 된 칼(형틀)을 말한다. 최인은 구멍이 뚫린 칼을 쓰고 있는 법인데, 구멍이 뚫리지 않은 칼을 쓰고 있으니 사람 분별로 헤아릴 수 없는 화두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은 경봉 스님은 가볍게 받아준다.

“절을 하고 묻게나.”

“그렇다면 손으로 잡아서 끌고 밀어 뒤에 떼 놓아 보게라.”

“설봉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바람이 소슬하게 불고 물이 차디차게 흐른다.”

이번에는 경봉 스님이 항국 스님에게 물었다.

“어째서 정상철가를 벗어 버리지 못하는가?”

“땅을 파고 들어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차나 한 잔 해라. 석가여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동서남북!”

경봉 스님은 술가지처럼 들어 보이며 다시 물었다.

“여기에 조사(조사)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이에 항국 스님은 침묵하였다.

항국 스님은 1947년 어느 날, 문경 봉암사에서 도반 스님이, “죽은 사람

을 죽여 다하여야 산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려 다하여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하는 법문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물목 회두 일념삼매에 들었다가, 21일 만에 화두를 타파하고 오도송을 옮겼다. 위의 문답은 3년 후 20년 연상인 경봉 스님을 만나 탁마하는 장면이다.

항국 스님이 거랑에 있어 공격 무기로 택한 ‘정상철가’란 <무문관>에 나온 말로써, ‘철가’란 철가무공(鐵枷無功)의 준말로 구멍이 뚫리지 않은 철로 된 칼(형틀)을 말한다. 최인은 구멍이 뚫린 칼을 쓰고 있는 법인데, 구멍이 뚫리지 않은 칼을 쓰고 있으니 사람 분별로 헤아릴 수 없는 화두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은 경봉 스님은 가볍게 받아준다.

“절을 하고 묻게나.”

“그렇다면 손으로 잡아서 끌고 밀어 뒤에 떼 놓아 보게라.”

“설봉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바람이 소슬하게 불고 물이 차디차게 흐른다.”

이번에는 경봉 스님이 항국 스님에게 물었다.

“어째서 정상철가를 벗어 버리지 못하는가?”

“땅을 파고 들어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차나 한 잔 해라. 석가여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동서남북!”

경봉 스님은 술가지처럼 들어 보이며 다시 물었다.

“여기에 조사(조사)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이에 항국 스님은 침묵하였다.

항국 스님은 1947년 어느 날, 문경 봉암사에서 도반 스님이, “죽은 사람

을 죽여 다하여야 산 사람을 보고, 죽은 사람을 살려 다하여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하는 법문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물목 회두 일념삼매에 들었다가, 21일 만에 화두를 타파하고 오도송을 옮겼다. 위의 문답은 3년 후 20년 연상인 경봉 스님을 만나 탁마하는 장면이다.

항국 스님이 거랑에 있어 공격 무기로 택한 ‘정상철가’란 <무문관>에 나온 말로써, ‘철가’란 철가무공(鐵枷無功)의 준말로 구멍이 뚫리지 않은 철로 된 칼(형틀)을 말한다. 최인은 구멍이 뚫린 칼을 쓰고 있는 법인데, 구멍이 뚫리지 않은 칼을 쓰고 있으니 사람 분별로 헤아릴 수 없는 화두인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은 경봉 스님은 가볍게 받아준다.

“절을 하고 묻게나.”

“그렇다면 손으로 잡아서 끌고 밀어 뒤에 떼 놓아 보게라.”

“설봉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수행은 끝이 없으니 쉽 없이 정진해야”

정종회 전병통 회장에서 듣는 ‘염불삼매’ 수행

12월 8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위강원한의원은 위장전문 치료에 소문난 한의원답게 환자들이 계속 밀어닥쳤다. 비쁜 진료시간에 짬을 내어 인터뷰에 응한 홍원(弘願) 전병통(全炳通, 55) 원장은 자비롭고 평온하면서도 빛이 나는 얼굴이 마치 생전의 청화 스님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아마도 청화 스님으로부터 염불삼매를 배워 염불삼매를 체험하여 얼굴이 점점 달아나는 것이 아닐까 여겨졌다.

홍원 거사는 그 바쁜 한의원 일 가운데서도 1주일에 두 번은 삼각산 토굴에서 철야 정진을 하고, 한 달에 두 번 3일 단식을 한다. 5년 전부터 하루 1~2시간만 자고 오후 불식과 채식은 하면서도 보통 사람 보다 건강하다. 이러한 엄청난 정진력은 물론 억지로 할 수 있는 수행이 아니다. 오욕락 보다 즐거운 법희선열(法喜禪悅)에서 나오는 ‘힘이 없는 수행(無修之修)’이다.

1952년 해인사 인근 합천에서 태어난 그는 대대로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했다. 본격적인 수행은 40년전 남해 보리암에서 관음정전에 들어간 것이 처음이었다. 이후 기도기포로 강연도 태백산의 숨은 도인이었던 항성 스님으로부터 염불을 배운 그는, 경봉, 성철, 서암, 청화, 탄성 스님 등 당대의 고승들을 친견하며 참선과 염불수행에 매진했다. 타베트, 중국, 대만 등 해외 고승들까지 친견하며 수행에 매진해온 홍원 거사는 아마타를 3000일 음력 11월 보름 마친내 염불삼매를 체험한다.

염불삼매를 얻고도 가행정진을 하는 이유를 묻자, “10지 보살, 등각보살도 수행을 하고 중생제도를 쉬지 않는다”며 수행은 끝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중생을 제도하려는 보리심을 갖추고 대승경전을 절대적으로 믿고 공부하면서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야만 바른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당부한다.

지난 해 12월, 염불삼매 수행자들의 모임인 정종회(淨宗會)를 창립해 회장을 맡은 홍원 거사는 조만간 종로에 기증한 아마타사를 허물고 3층 건물로 확장해 수행공간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02-745-3351)

-20년간 간화선을 뒤은 후 염불선으로 전환한 까닭은?

큰스님들의 가르침대로 생활 속에서 화두를 들었지만 깊은 선정에 들어가 쉽지 않았다. 스님들처럼 한동안 집중적인 가행정진을 하지 않고서는 화두삼매에 드는 것이 어려움을 느꼈고, 수행입문 30년 만에 청화 큰스님을 뵈고 염불이 말뚝시대 근기에 맞는 수승한 수행법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육신(六塵)경계에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이때 번뇌·망상에 물들지 않고 정(淨)에 들기 위해서는 염불만한 방법이 없다. 처음엔 타력(他力)인 정토염불로 시작하더라도 마침내 자력(自力) 수행인 염불로 들어보면,

타력과 자력이 힘이 아님을 알게 된다.

-초보자는 어떻게 염불해야 하나.

<법화경> <화엄경> <경토삼부경> 등 대승경전을 깊이 믿고 읽어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정직하고 순수하고 하심하고 겸소하고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진여자성(眞如自性)에 마음을 두고 염하라. 처음에는 염불에 취미를 붙이고, 그런 다음 그것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 나중에는 저절로 일심삼매에 들게 해야 한다. 맑고 고요한 광명의 자리에 이르러면 퇴보 없이 공부가 잘로 된다.

-염불삼매는 어떤 상태인가.

삼라만상이 고요해진 깊은 밤에 선정에 들면 모든 번뇌·망상이 씻은 듯 사라지고 쉽게 일념(一心)이 되고 정념(淨念, 正念)이 된다. 점점 깊어져 무념(無念)이 되면 나의 육신도 벗어버리고 나라는 생각조차 없어져 버리는 공적(空寂) 영지(靈知)한 참마음의 세계에 이른다. 이것이 진여실상(眞如實相)의 세계, 성성적지(惺惺寂寂)한 참마음의 세계, 불성(佛性)과 부처님의 세계, 우주생명의 본질 세계인 것이다.

-염불삼매에 든 체험을 말씀해 달라.

2002년 음력 11월 보름 7일간의 정진에 들어갔을 때였다. 새벽 2시경 염불선정(念佛禪定)에 들어 갔을 삼매에 들었는데, 갑자기 온 우주와 무너지는 듯한 굉음(轟轟)과 함께, 한 줄기 빛이 솟아 점점 커지면서 온 천하대지가 황금으로 되었다. 무릎과 무릎을 사이에 두고 머리끝까지 관(觀)하고 관(觀)하니, 눈앞에 맑고 깨끗한 큰 연못이 나타나는데, 희고 붉고 푸른 빛깔의 여러 가지 연꽃이 보이고, 꽃마다 여러 가지 밝은 빛을 발하여 아름답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



염불삼매 수행으로 ‘삼매’를 맛봤다는 전병통 회장.

며, 연꽃 위에는 동자(童子)들이 보였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놀라워하며 고개를 들어보니, 찬란한 광명을 발하는 아마타부처님(보시불)이 계시고 관세음·대세지 두 보살님께서 양옆에 계시었다. 관세음 보살님을 뵈니 이내 마음이 안정되었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 아마타부처님께 예를 올리라 하시기에 삼배를 올리고 장계합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마타부처님께서 정수리에 감로수를 부어주시는데, 나와 우주 전체가 밀이 빠져버려 텅 빈 허공이 되어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 아마타부처님께서 “너는 속세의 선근이 깊어 이곳에 왔으니 여러 가지 수행론 중에 정토와 선정(佛三昧)을 겸해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수승하니, 정토를 선양하고 네 가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다. 눈

물을 흘리며 예를 올리는 순간, 새벽 대중 소리에 선정에서 깨어났다. 아직도 부처님 광명이 남아 있는 듯하고, 석불(石佛)인 주위로 (형이 피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한 한 마음이 가득했으니 주위는 적막하고 고요하기만 했다.

-평상시 어떻게 마음을 닦고 마음을 싸야 하나.

내 목숨을 바쳐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보리심을 갖는 것이 수심(수심)과 용심(용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초와 향은 자기를 태워 세상에 빛과 향기를 남긴다. 자기(我相)를 버려서 무아, 무소유가 되어야 영원한 도(道), 진리에 들어갈 수 있다. 현상세계의 번뇌·망상에 물들지 않고 늘 자기의 본심이 시·공을 초월한 아마타불임을 자각하며 정진해야 한다.

김성우 객원기자(buddhapia5@daum.net)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인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계시판

- 일승(一乘) 법문과 문답**-현정선원은 매 주 일요일 오후 2~3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대우 거사의 참선법문과 문답 시간을 갖는다. (02)582-9371
- 주말 우빠사나 수행**-부산 우빠사나선원은 매주 토요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황재관 강사의 지도로 우빠사나 수행법문과 문답 시간을 갖는다. (016)460-2378
- 행복명상 수련회**-서울 행복명상치유센터는 자비관과 지관수행법을 위주로 행복명상 27기 수련회를 연다. 12월 21~23일, 28~30일, 내년 1월 4~6일, 18~20일 2박3일간의 일정. (02)6081-7227

사찰공양실 고급수저 공장도가 시판!

불자용 명품수저 DANI 공장도가 Set 당 1,000원씩 공급

■무자녀 새해선물!!

사찰공양실 보시로 품격!! 불자가정 새해 선물로 최고!!

국내주방용품 생산메이커인 (주)신도스텐에서 사찰 공양실과 불자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큰호응을 얻고 있다.

명품브랜드인 DANI 로 국내주방용품을 석권하고 있는 신도스텐 대표 최성욱은 사찰에 갈 때마다 공양실에서 나오는 수저가 일반식당에서 나오는 저품격 수저와 같아 사찰공양실이 아닌 세사식당에서 먹는것과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명품DANI 불자용 수저를 제작해 공장도 가격에 공급한다고 했다. 명품수저 “다니”는 일반수저와 달리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의료기 만드는 최고급 스텐레스로 제작되었으며 수저 손잡이 상단에는 막힘없는 불사 성공과 불자들의 건강장수를 위해 “반장”을 넣고 수

저중간에는 사찰과 불자가정의 비상을 기원하는 뜻에서 “화2마리”가 비상을 하며 손잡이 하단에는 공양하는 불자들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게 육자대명왕 진언 “옴”자를 넣어 고급스럽고 품격있게 제작되어 있다. 명품 “다니” 일반수저는 백화점에서 Set에 3,500원씩 판매되고 있으나 사찰과 불자가정은 보시하는 마음으로 1,000원씩 공급하고 있어 사찰공양실과 불자가정의 뜻깊은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있다. 명품수저DANI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20Set 선물을 20,000원과, 사찰에서 사용할 수 있게 50Set 50,000원, 100Set 100,000원 등 3가지로 포장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의(02)741-4477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무자녀 소원 성취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2008년 쥐띠 무자녀는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속설로 2007년 12월이 되면 정해년의 기운은 다해 떠나가고 무자녀의 새로운 기운이 이미 들어오고 있어 버릴것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기운을 받을 준비를 해야한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난다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 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중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 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발하게 하는 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 지갑이다. 또한 사용하면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동산이 쉽게 팔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물”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금주머니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실본의 생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법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반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2008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목은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세수가 있으므로 위협하지 말고 일을벌리던 남매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다행을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다행을 화를 미리 쫓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 세상 각종 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 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순금니로 제작하여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가 끝나는 2009년 말일 삼고금강저를 기도한 후 땅속에 묻으면 삼재는 모두 끝난다. 삼재소멸 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드립니다. 가격:35,000원 (가로5cm폭2cm)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